

# 아르바나 Arvana

Version ①

by lo-ol type studio  
(Noheul Lee, Loris Olivier)

# 아

## VERSION 1

‘아르바나’는 납작펜과 스카펠 나이프의 특성이 담긴,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지닌 휴머니스트 스타일의 바이 스크립트 글꼴입니다. 아르바나는 한글 부리 글꼴 디자인을 벗어나 서양의 쓰기 도구들로 써본 형태를 상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필획의 섬세함을 유지하는 선에서 날카로운 형태를 부드럽게 나타내고자 했고, 디자이너의 손글씨 느낌을 일부 자소에 반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받침 니은과 리을에 있는 약간의 굴곡은 캘리그래픽 흘림의 형태를 차용함과 동시에 작업자의 이름에 들어간 자음을 강조하여 본문에 개성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아르바나는 제 6회 방일영재단 글꼴창작지원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Arvana’ is a typeface using both Hangul and Latin scripts. It possesses some western calligraphic features but has grown around a strong Hangul brush core. Its shapes and details take a slightly more Latin calligraphy direction which gives a more humanistic feeling to the text. Arvana assembles a set of razor-sharp edges and shapes with elegant dynamic curves. The typeface aims to create an elegant and refined style. The final consonants shapes are inspired by the designer own handwriting.

Arvana won the 6th Bang il young Cultural Foundation Fund Competition for Hangul typeface in Korea.

Thin 띤

ExtraLight 엑스트라라이트

Light 라이트

Regular 레귤러

Medium 미디움

Bold 볼드

Black 블랙

+Variable font

# Radical Supernormal

날카롭고 부드러운 

A crisp & kinetic personality

휴머니스트 한글·라틴 글꼴, **아르바나**

elegant&refined 

“서양의 캘리그래피 미감을 담아본 한글꼴 제작!”

Arvana will strive for the highest standards

‘왜 본문글꼴에 디자이너의 개성이 없어야 되죠? 난 모르겠는데?’

Make your text **more distictive**

곡선과 직선, 곡선과 직선

한번도 본적없는 한글꼴이라 어색한가요? 걱정마세요! 우리 이제부터 친해져봐요! :-)

Hangul matchs Latin typeface with calligraphic style

**Arvana Latin will be also Fantastic!**

☆아르바나 마침내 7종 완성!☆

♡♡7종의 굵기와 가변글꼴! 자유롭게 사용해주세요!★☆

If you have any questions, feel free to contact me→ [info@lo-ol.design](mailto:info@lo-ol.design) / [wemeeteverything@gmail.com](mailto:wemeeteverything@gmail.com)

# 새로움에 대한 고민, 글꼴 ‘아르바나’

서양의 캘리그래피 미감을 한글에 입히다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지닌 휴머니스트 글꼴

\*\*\*

한글과 로마자가 병기된 서적들이 많이 발행되면서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한글과 로마자 섞어짜기에 대한 여러가지 노하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로마자에는 다양한 종류의 본문형 글꼴이 있는 반면, 한글은 최근까지도 기본 명조(해서)를 기반으로 약간의 변화만을 준 유사 형태의 글꼴들이 대부분이었다. 일부 초서의 형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꼴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전통적 서예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형태였다.

글꼴 디자이너로서, 또 현대의 한국에서 한글을 읽고 말하고 쓰는 사람으로서 아르바나의 제작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앞서 언급한 다양한 한글 글꼴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조 계열의 서체를 제작하되, 전통적인 붓이 아닌 다른 도구를 뼈대로 한 새로운 느낌의 명조체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방법을 연구하던 중 서양 캘리그래피 도구 중 하나인 브로드닙펜(broad nib pen)의 조형적 특징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브로드닙펜이 가진 특유의 직선과 곡선이 공존하는 독특한 미감을 붓글씨를 바탕으로 한 명조체의 구조에 잘 적용시킨다면 분명 현대적인 느낌의 글꼴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쓰기 도구에 대한 관심 이외에도 섞어짜기가 일반화 된 한글 디자인 환경 속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로마자 글꼴과 잘 어울리는 한글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던 적이 많았는데, 이러한 다국어 환경에 적용 가능한 글꼴 제작에 대한 호기심 역시 아르바나 제작에 큰 영향을 미쳤다. 초기 기획 단계에서 모티브가 된 로마자는 평소 눈여겨 보았던 그릴리 타입 파운더리(Grilli Type Foundry)에서 2014년도에 출시한 GT 섹트라(GT Sectra)라는 글꼴이다.

GT 섹트라는 캘리그래피 브로드 닙펜과 스칼펠 나이프(scalpel knife)로 깎은 듯한 느낌을 동시에 아우르는 세리프 글꼴이다. 하지만 고전적 쓰기 도구를 사용하여 나오는 글자 형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쓰기 도구를 조합해 만든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글꼴이라는 점이 흥미로웠고 이를 한글 디자인 과정에도 적용하여 캘리그래피 닙펜이 가지는 직선과 곡선의 대비, 그리고 스칼펠 나이프의 날카로운 느낌, 이 두 가지 특징들을 한글에 적용해 보고 싶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르바나는 한글 명조체 디자인을 붓이 아닌 다른 쓰기 도구들로 써본 형태를 상상해 본,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운 인상을 지닌 휴머니스트 스타일의 바이 스크립트 글꼴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필획의 섬세함을 유지하는 선에서 날카로운 형태를 조금 더 부드럽게 변형했고, 디자이너의 손글씨 느낌을 일부 자소에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받침 니은과 리을에 있는 약간의 굴곡은 캘리그래픽 흘림의 형태를 차용함과 동시에 작업자의 이름에 들어간

자음을 강조하여 본문에 개성을 부여하면서도 디자이너의 정체성을 무겁지 않게 녹여내었다. 로마자는 한글작업이 어느정도 진전되었을때 작업을 시작했다. 로마자는 모티브가 된 글꼴의 컨셉만을 남기고, 형태를 만들어 나갈 때는 한글과 어울리게끔 부드러운 휴머니스트 글꼴로 만들었다.

아르바나를 제작하게 된 계기는 본문용과 제목용 그 사이의 느낌을 찾아보는 것에서 출발했으나, 본문보다 작은 글자 크기(캡션이나 신문용 글자 크기 등)에서도 개성과 가독성을 모두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최종버전인 현재, 아르바나는 총 7종의 굵기(글글글글글글글)로 완성되었다. (버전 1, 아르바나 최종버전은 한글 2780자, 라틴 249자, 숫자 44자, 문장부호 및 약물 135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5년 호기심으로 끄적거리며 시작했던 글자가 마침내 최종 완성되니 무척 감회가 새롭다. 이제 아르바나는 “lo-ol.design”로 옮겨 새롭게 등지를 튼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는 서체로 남았으면 싶다. 아르바나 드디어 최종 완성! 야호!

†

한글 디자인의 다양성에 관한 요구는 늘 있어왔지만, 2,000여 자에 달하는 기본 글자들을 만드는 노고와 글자체의 개성보다 완성도, 과거의 전설적 디자이너들의 식자체와 얼마나 닮아 있는냐가 암묵적인 평가 기준이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2010년 이후로는 개성 있으면서도 본문에 사용 가능한 글자를 제공하는 한글 폰트들이 많아졌고, 한국 그래픽 디자인 풍경이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그중 쓰기 도구로 한글을 재해석하는 흐름은 펜이나 브로드넵펜 등 여러 도구로 표현해 기존의 고딕·명조로 쉽게 분류할 수 있었던 한글 디자인의 영역에 조그만 회색 지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아르바나는 쓰기 도구를 재해석하는 글꼴의 영역에 속하지만, 그 특성을 살펴보면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 쓰기 도구를 사용했다는 점과 다국어 환경에 관한 고려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날카로운 직선과 시원하게 뻗은 곡선이 대비되는 아르바나의 형태는 디지털 환경에 어울리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아날로그적이다. 특히 히읏이나 피읍의 흘림, 리을이나 니은의 형태는 이를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가장 큰 장점은 본문용 크기에서 보았을 때 이런 특징들이 지나치게 튀지 않고 자연스럽다는 점이다. 이미 ‘글줄이 긴 본문은 명조체’라는 시각적 습관에 익숙하더라도 자연스레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아날로그 도구를 바탕으로 했지만 두 가지 도구를 조합할 때 그 특징을 규격화하고 정량화해 안정감을 확보하고, 이는 긴 글을 해당 글꼴로 읽어내려갔을 때 개별 글자의 모양보다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이현송(그래픽디자이너)



※ Style set (Paralell line)

아르바나의 곡선형 받침인 ‘ㄴ, ㄷ, ㄹ, ㅌ’이  
직선화되어 나타납니다.

(OpenType < Style set < Parallel line)

ㄴ ㄷ ㄹ ㄹ

ㄴ ㄷ ㄹ ㄹ

설악산

왼쪽 건널목

핸드폰

단힘 버튼

얇은 타면

기본(default): 유선형 받침

설악산

왼쪽 건널목

핸드폰

단힘 버튼

얇은 타면

평행선 스타일(Parallel line)

길 잃은

언짢은 말

맑고 맑은

물을 끓이다

곶말장그물

기본(default): 유선형 받침

길 잃은

언짢은 말

맑고 맑은

물을 끓이다

곶말장그물

평행선 스타일(Parallel line)

올리브 오일

맑은 하늘

열림과 단힘

언짢은 왁스

기본(default): 유선형 받침

올리브 오일

맑은 하늘

열림과 단힘

언짢은 왁스

평행선 스타일(Parallel line)

## ※ Opentype features (Type < OpenType)

*Style set 1	원 달 놀 손 뽀 R K	원 달 놀 손 뽀 R K
Case Sensitive Forms	———()[]{<>«»	———()[]{<>«»
Contextual Alternates		
*(Style set 2)	01234567	①②③④⑤⑥⑦
*(Style set 3)	01234567	①②③④⑤⑥⑦
Discretionary Ligatures		
*(Arrows)	-> <- ^- -^	→ ← ↑ ↓
*(Number with Parenthesis)	(2)(3)(4)(5)	(2)(3)(4)(5)

※ 간혹 인디자인에서 오픈타입 사용시 잘 변하지 않을때는 Type < Language < English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 ※ Play for fun!

Hello, My name is Noheul Lee🍷

I am overflowing with fun☆ and passion♡  
probably... But my problem(!) is that I get  
bored easily. Why do I get bored easily?? I  
don't know... What I am writing??📝

☑ 오늘의 환율(₩) 체크! 2022년 10월 12일 시세로  
따졌을때 ①⑤①①①①①①달러(\$)는 한화로  
약 ①①⑥,③④⑥⑤①①①.①①원(₩)이라고 한다.  
3.5% 오름↗ 언제쯤 떨어질까?? 휴...  
올라가고↗ 내려가고↘ 혹은 동일하고=  
→→→금융 환율정보 참고📖✓

초콜릿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이 서유럽 내에서 유독 힘들게 자연을 정복하며 살아야만 했다. 스위스 사람들은 과연 언제부터 기호식품 초콜릿을 먹었을까? 초콜릿 산업은 1800년대 초, 로잔 근처에 설립된 식품회사에서 생산하면서 시작했다. 지금의 네슬레(Nestle)가 되는 이 회사는 19세기에 걸쳐 린트, 프레이 등 초콜릿 회사들의 춘추전국기를 거치며 대부분의 회사들은 인수 및 합병으로 인해 사라졌으나 그들 여전히 생산되면서 스위스 초콜릿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이 스위스 초콜릿 시장의 유효 단일시장으로는 제일 아니다. 기준 팔백사십만 스위스 국민의 초콜릿 소비량은 인당 십이킬로그램 일, 이위를 다투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래도 수출이다. 초콜릿 판매량의 육십오프로 이상이 수출되는 나라다. 알려진 린트(Lindt), 토블론(Toblerone) 등이 대표적인 스위스 초콜릿이다. 스위스 사람들이 정말로 곁에 두고 먹는 초콜릿은 따로 있다. 식품회사로 여겨지는 까이에와 이번에 방문한 프레이의 초콜릿이 스위스 초콜릿 내수시장의 양대산맥을 형성하는 브랜드다. 프레이는 스위스의 양대 유통업체인 미그로스와 쿵 각자의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덕분이다. 미그로스는 최근 중국을 주 무대로 한 기업으로, 그래서인지 프레이 초콜릿 또한 한국 면세점에서도 판매된다. 반면 쿵에서 판매되는 까이에의 아시아 진출 소식은 아직 없다.

초콜릿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이 서유럽 내에서 유독 힘들게 자연을 정복하며 살아야만 했. 그런 스위스 사람들은 과연 언제부터 기호식품 초콜릿을 스위스 초콜릿 산업은 1800년대 초, 로잔 근처에 설립된 초콜릿을 생산하면서 시작했다. 지금의 네슬레(Nestle)가 필두로 19세기에 걸쳐 린트, 프레이 등 초콜릿 회사들의 춘 펼쳐졌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들은 인수 및 합병으로 인해 브랜드와 주력 제품은 여전히 생산되면서 스위스 초콜릿의 있다. 예상 외로 내수 시장이 스위스 초콜릿 시장의 유효 규모가 크다. 2016년 기준 팔백사십만 스위스 국민의 초콜릿 십일키로로, 독일과 세계 일, 이위를 다투고 있다는 통계가. 그래도 가장 큰 수입원은 수출이다. 초콜릿 판매량의 육십 수출되는데 한국에도 잘 알려진 린트(Lindt), 토블론(Tob) 대표적인 수출 브랜드다. 하지만 스위스 사람들이 정말로 초콜릿은 따로 있다. 최초의 초콜릿 식품회사로 여겨지는 방문한 프레이의 초콜릿이 스위스 초콜릿 내수시장의 양대 브랜드다. 프레이와 까이에가 역시 스위스의 양대 유통업체. 각각의 슈퍼마켓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되는 덕분이다. 미그 주 무대로 한 아시아 시장을 공략 중으로, 그래서인지 프레이 면세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쿵에서 판매되는 까이

초콜릿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이  
서유럽 내에서 유독 힘들게 자연을 정복하며 살아야만 했  
그런 스위스 사람들은 과연 언제부터 기호식품 초콜릿을  
스위스 초콜릿 산업은 1800년대 초, 로잔 근처에 설립된  
초콜릿을 생산하면서 시작했다. 지금의 네슬레(Nestle)가  
필두로 19세기에 걸쳐 린트, 프레이 등 초콜릿 회사들의  
펼쳐졌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들은 인수 및 합병으로 인해  
브랜드와 주력 제품은 여전히 생산되면서 스위스 초콜릿의  
있다. 예상 외로 내수 시장이 스위스 초콜릿 시장의 유효  
규모가 크다. 2016년 기준 팔백사십만 스위스 국민의 초콜릿  
십일키로로, 독일과 세계 일, 이위를 다투고 있다는 통계가  
그래도 가장 큰 수입원은 수출이다. 초콜릿 판매량의 육십  
수출되는데 한국에도 잘 알려진 린트(Lindt), 토블론(Toblerone)  
대표적인 수출 브랜드다. 하지만 스위스 사람들이 정말로  
초콜릿은 따로 있다. 최초의 초콜릿 식품회사로 여겨지는  
방문한 프레이의 초콜릿이 스위스 초콜릿 내수시장의 양대  
브랜드다. 프레이와 까이아가 역시 스위스의 양대 유통업  
각각의 슈퍼마켓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되는 덕분이다. 미국  
주 무대로 한 아시아 시장을 공략 중으로, 그래서인지 프  
면세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쿵에서 판매되는 까이

초콜릿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이  
서유럽 내에서 유독 힘들게 자연을 정복하며 살아야만 했  
그런 스위스 사람들은 과연 언제부터 기호식품 초콜릿을  
스위스 초콜릿 산업은 1800년대 초, 로잔 근처에 설립된  
초콜릿을 생산하면서 시작했다. 지금의 네슬레(Nestle)가  
필두로 19세기에 걸쳐 린트, 프레이 등 초콜릿 회사들의  
펼쳐졌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들은 인수 및 합병으로 인해  
브랜드와 주력 제품은 여전히 생산되면서 스위스 초콜릿  
있다. 예상 외로 내수 시장이 스위스 초콜릿 시장의 유효  
규모가 크다. 2016년 기준 팔백사십만 스위스 국민의 초  
십일키로로, 독일과 세계 일, 이위를 다투고 있다는 통계가  
그래도 가장 큰 수입원은 수출이다. 초콜릿 판매량의 육십  
수출되는데 한국에도 잘 알려진 린트(Lindt), 토블론(To  
대표적인 수출 브랜드다. 하지만 스위스 사람들이 정말로  
초콜릿은 따로 있다. 최초의 초콜릿 식품회사로 여겨지는  
방문한 프레이의 초콜릿이 스위스 초콜릿 내수시장의 양  
브랜드다. 프레이와 까이제가 역시 스위스의 양대 유통업  
각각의 슈퍼마켓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되는 덕분이다. 미  
주 무대로 한 아시아 시장을 공략 중으로, 그래서인지 프  
한국 면세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쿵에서 판매되는

초콜릿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이  
관통해 서유럽 내에서 유독 힘들게 자연을 정복하며 살아  
있다. 그런 스위스 사람들은 과연 언제부터 기호식품 초  
것일까? 스위스 초콜릿 산업은 1800년대 초, 로잔 근처  
까이에에서 초콜릿을 생산하면서 시작했다. 지금의 네슬  
되는 이 회사를 필두로 19세기에 걸쳐 린트, 프레이 등 초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졌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들은 인수  
사라졌으나 그 브랜드와 주력 제품은 여전히 생산되면서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예상 외로 내수 시장이 스위스  
유효 단일시장으로는 제일 규모가 크다. 2016년 기준 필  
국민의 초콜릿 소비량은 인당 십일키로로, 독일과 세계  
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래도 가장 큰 수입원  
초콜릿 판매량의 육십오프로 이상이 수출되는데 한국에  
린트(Lindt), 토블론(Toblerone) 등이 대표적인 수출 브  
스위스 사람들이 정말로 곁에 두고 먹는 초콜릿은 따로  
식품회사로 여겨지는 까이에와 이번에 방문한 프레이의  
초콜릿 내수시장의 양대산맥을 형성하는 브랜드다. 프레  
스위스의 양대 유통업체인 미그로스와 쿵 각각의 슈퍼마  
판매되는 덕분이다. 미그로스는 최근 중국을 주 무대로  
공략 중으로, 그래서인지 프레이 초콜릿 또한 한국 면세

초콜릿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 관통해 서유럽 내에서 유독 힘들게 자연을 정복하며 살아 있다. 그런 스위스 사람들은 과연 언제부터 기호식품 초콜릿일까? 스위스 초콜릿 산업은 1800년대 초, 로잔 근처 까이에에서 초콜릿을 생산하면서 시작했다. 지금의 네슬레 되는 이 회사를 필두로 19세기에 걸쳐 린트, 프레이 등 초콜릿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졌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들은 인수합병으로 사라졌으나 그 브랜드와 주력 제품은 여전히 생산되면서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예상 외로 내수 시장이 스위스보다 유효 단일시장으로는 제일 규모가 크다. 2016년 기준 스위스 국민의 초콜릿 소비량은 인당 십일키로로, 독일과 세계 1위 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래도 가장 큰 수입원은 초콜릿 판매량의 육십오프로 이상이 수출되는데 한국이 린트(Lindt), 토블론(Toblerone) 등이 대표적인 수출처다. 스위스 사람들이 정말로 곁에 두고 먹는 초콜릿은 따로 없다. 식품회사로 여겨지는 까이에와 이번에 방문한 프레이의 초콜릿 내수시장의 양대산맥을 형성하는 브랜드다. 프레이는 스위스의 양대 유통업체인 미그로스와 쿵 각각의 슈퍼마켓에 판매되는 덕분이다. 미그로스는 최근 중국을 주 무대로 공략 중으로, 그래서인지 프레이 초콜릿 또한 한국 면세점

초콜릿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 관통해 서유럽 내에서 유독 힘들게 자연을 정복하며 살아 있다. 그런 스위스 사람들은 과연 언제부터 기호식품 초콜릿을 만들었을까? 스위스 초콜릿 산업은 1800년대 초, 로잔 근처의 까이에에서 초콜릿을 생산하면서 시작했다. 지금의 네스트레는 이 회사를 필두로 19세기에 걸쳐 린트, 프레이 등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졌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들은 인공 감미료의 사용에 반대하며, 자연산 재료만을 사용하여 생산한다. 이로 인해 사라졌으나 그 브랜드와 주력 제품은 여전히 생산되고 있다. 초콜릿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예상 외로 내수 시장이 아닌 수출 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16년 기준 스위스 국민의 초콜릿 소비량은 인당 십일키로로, 독일 다음으로 높은 이위를 다투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래도 수출이 중요하다. 초콜릿 판매량의 육십오프로 이상이 수출되고 있다. 알려진 린트(Lindt), 토블론(Toblerone)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스위스 사람들이 정말로 곁에 두고 먹는 초콜릿은 까이에의 최초의 초콜릿 식품회사로 여겨지는 까이에와 이번에 소개한 네스트레의 초콜릿이다. 초콜릿이 스위스 초콜릿 내수시장의 양대산맥을 형성하고 있다. 프레이와 까이에가 역시 스위스의 양대 유통업체인 미그로와 코오퍼의 슈퍼마켓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되는 덕분이다. 미그로와 코오퍼는 주로 무대로 한 아시아 시장을 공략 중으로, 그래서인지

예술의 세계처럼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분야도 드물다. 나이가 인매료시키는 ‘반짝반짝한 그 무엇’ 선사하진 않는다. 좀더 잔인하게 이야기하자면, 오손 웰즈의 영화 <케인>에 나오는 말처럼 ‘Some people can sing, others can’t.’인 것이다. 언젠가 그녀의 힘으로 80년생, 그 최연소 작가 무엇이라는 수식어를 떼버리거나 무력화시킬 날이 올 것. 나이와 성별이 그녀의 재능을 만든 것이 결코 아니므로.”

예술의 세계처럼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분야도 드물다. 나이가 인매료시키는 ‘반짝반짝한 그 무엇’ 선사하진 않는다. 좀더 잔인하게 이야기하자면, 오손 웰즈의 영화 <케인>에 나오는 말처럼 ‘Some people can sing, others can’t.’인 것이다. 언젠가 그녀의 힘으로 80년생, 그 최연소 작가 무엇이라는 수식어를 떼버리거나 무력화시킬 날이 올 것이다. 나이와 성별이 그녀의 재능을 만든 것이 결코 아니므로.”

예술의 세계처럼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분야도 드물다. 나이가 인매료시키는 ‘반짝반짝한 그 무엇’ 선사하진 않는다. 좀더 잔인하게 이야기하자면, 오손 웰즈의 영화 <케인>에 나오는 말처럼 ‘Some people can sing, others can’t.’인 것이다. 결국 언젠가 그녀의 힘으로 80년 그리고 최연소 작가 무엇이든 수식어를 떼버리거나 무력화시킬 날이 올 것이다. 나이와 성별이 그 재능을 만든 것이 결코 아니므로

예술의 세계처럼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분야도 드물다. 나이가 언제든 매력시키는 ‘반짝반짝한 그 무엇’ 선사하진 않는다. 좀더 잔인하게 이야기하자면, 오손 웰즈의 영화 <케인>에 나오는 말처럼 ‘Some people can sing, others can’t.’인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언젠가 그녀의 힘으로 80년 그리고 최연소 작가 무엇이든 수식어를 떼버리거나 무력화시킬 날이 올 것이다. 나이와 성별이 그 재능을 만든 것이 결코 아니므로

예술의 세계처럼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분야도 드물다. 나이가 영매료시키는 ‘반짝반짝한 그 무엇’ 선사하진 않는다. 좀더 잔인하게 이야기하자면, 오손 웰즈의 영화 <케인>에 나오는 말처럼 ‘Some people can sing, others can’t.’인 것이 결국 언젠가 그녀의 힘으로 80년 그리고 최연소 작가 무엇이든 수식어를 떼버리거나 무력화시킬 날이 올 것이다. 나이와 성별이 그 재능을 만든 것이 결코 아니므로

예술의 세계처럼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분야도 드물다. 나이가 인간을 매료시키는 ‘반짝반짝한 그 무엇’을 선사하진 않는다. 좀 잔인하게 이야기하자면, 오손 월 영화 〈시민 케인〉에 나오는 말처럼 ‘Some people can sing, other can’t.’인 것이다. 결국 언젠가 그 힘으로 80년생, 그리고 최연소 무엇이라는 수식어를 떼버리거나 무력화시킬 날이 올 것이다. 나이 성별이 그녀의 재능을 만든 것이

예술의 세계처럼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분야도 드물다. 나이가 인간을 매료시키는 ‘반짝반짝한 그 무엇’을 선사하진 않는다. 좀 잔인하게 이야기하자면, 오손 윌 영화 〈시민 케인〉에 나오는 말처럼 ‘Some people can sing, others can’t.’인 것이다. 결국 언젠가 그녀의 힘으로 80년생, 그리고 최연소 작가 무엇이라는 수식어 떼버리거나 무력화시킬 날이 올 것이다. 나이와 성별이 그녀의 기

## 트럼프식 영어는 ‘단순무식’? 그래서 더 먹히나

제목(title) 12 pt / 17.5 pt  
본문(body) 10 pt / 17.5 pt

Black, Bold, Regular

트럼프의 글에서 문맥에 맞지 않는 문장이나 철자가 틀린 것은 부지기수다.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의 유려한 글이나 연설과는 비교할 필요도 없다. 지난 4일 트럼프는 오바마가 대선 때 자신의 전화를 도청했다(tapp)고 썼다. 알파벳 p를 하나만 써야 하는데 두 번 썼다. 작년 12월, “**전례없는 행위(unpresidented act)**”라고 썼다가 **맞는 단어(unprecedented)**로 고쳤다. ‘**그들의(their)**’를 ‘**거기(there)**’로, ‘**낭비(waste)**’를 ‘**허리(waist)**’로 적기도 했다. 단수를 복수로 잘못 쓰거나 억지로 하이픈(-)을 넣곤 한다. 러시아 스캔들은 “**터무니없다(non-sense)**”고 했고, 배우 메릴 스트리프는 “**과대평가됐다(over-rated)**”고 썼다. 트럼프의 글에는 독특한 형식이 있다. 간단한 성명과 감정 표현 뒤 느낌표로 마무리짓는 구조다. 문장 끝에 “**나쁘다(Bad!)**” “**위대하다(Great!)**” “**매우 슬프다(So Sad!)**” 등을 즐겨 쓴다.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많다.

트럼프의 트윗들을 분석하는 ‘**트럼프 트위터 아카이브**’ 사이트를 보면 그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패배자(loser, 234건)**, **멍청한(dumb, 222건)**, **끔찍한(terrible, 204건)**, **어리석은(stupid, 183건)** 순이었다. 영터리 문법에 극도로 단순한 트럼프의 영어는 대중들, 특히 지지자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이다. 지난해 대선 때 카네기멜론대학 언어기술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문법은 11세, 단어 사용은 14세 수준이었다. ‘**쉬운 영어**’는 대중이 트럼프를 기존 정치인이 아닌, 자기들과 같은 사람이라 느끼게 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은 분석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과도한 트윗에 불편함을 토로하는 여론도 많다. 지난 15일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 51%는 트럼프의 트위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

## 프로방스에서 만나는 ‘빛의 채석장(Carières de Lumières)’

제목(title) 12 pt / 17.5 pt  
본문(body) 10 pt / 17.5 pt

Black, Bold, Regular

**보 드 프로방스(Baux-de-Provence)** 마을의 저지대에 위치한 대규모 채석장이 위대한 아티스트들을 위한 환상적 멀티미디어 공연장으로 변신했다. 웅장한 분위기의 내벽, 그리고 기둥과 바닥에 투사되는 대가의 작품들이 음악에 맞춰 움직이며 클림트, 피카소, 반 고흐의 상상계 속으로 우리를 이끈다. 빛의 채석장으로 향하여 공연에 관한 비밀을 파헤쳐 보자.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된 보 드 프로방스는 석회산 모퉁이에 위치한 요새 마을이며, **아를(Arles)**, **아비뇽(Avignon)**, **살롱 드 프로방스(Salon-de-Provence)** 사이에 떠있는 거대한 군함의 모습을 하고 있다. 굽이진 골목길을 돌고 돌아 아름다운 중세 성 광장에 도착하면, 골짜기와 **카마르그(Camargue)**가 한눈에 들어오는 숨 막히는 광경이 펼쳐진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생트 빅투아르(Sainte-Victoire)** 산의 봉우리까지도 볼 수 있다. 빛의 채석장이 있는 **발 당페르(Val d’Enfer)** 계곡도 풍덩 뛰어들고 싶게 하는 경치를 자랑한다. 암석으로 가득 찬 혼돈, 동굴이 뚫린 절벽과 함께 요동치는 풍경… 보 드 프로방스 기슭의 발 당페르 계곡은 괴이한 모습의 채석장으로 가득하다. 그곳에 사는 요정과 마녀의 이야기에 얽힌 전설과 시는 아직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2012년부터는 컬처스페이스가 채석장 내부 10,000 제곱미터에 이르는 새하얀 암벽을 배경으로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시청각 공연을 펼치고 있다.

빛의 채석장이 있는 **그랑 풍(Grands Fonds)** 채석장은 보 드 프로방스 마을과 성을 짓기 위해 필요한 흰색 석회석의 주요 공급처였다. 이 채석장은 1920년대까지 운영되다가 점차 방치되었고, 1935년이 되자 완전히 폐쇄되었다. 하지만 이 채석장의 운명에 빛을 밝혀 준 한 명의 시인이 있었다. 그곳의 캄캄한 동굴, 복도, 거대한 기둥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장 콕토(Jean Cocteau)는 영화 **〈오르페의 유언(Le Testament d’Orphée)〉(1959)**에서 그랑 풍 채석장의 다채롭고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 트럼프식 영어는 ‘단순무식’? 그래서 더 먹히나

제목(title) 11 pt / 16.5 pt  
본문(body) 9 pt / 16.5 pt

Black, Bold, Regular

트럼프의 글에서 문맥에 맞지 않는 문장이나 철자가 틀린 것은 부지기수다.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의 유려한 글이나 연설과는 비교할 필요도 없다. 지난 4일 트럼프는 오바마가 대선 때 자신의 전화를 도청했다(tapp)고 썼다. 알파벳 p를 하나만 써야 하는데 두 번 썼다. 작년에는 “전례없는 행위(unprecedented act)”라고 썼다가 맞는 단어(unprecedented)로 고쳤다. ‘그들의(their)’를 ‘거기(there)’로, ‘낭비(waste)’를 ‘허리(waist)’로 적기도 했다. 단수를 복수로 잘못 쓰거나 억지로 하이픈(-)을 넣곤 한다. 러시아 스캔들은 “터무니없다(non-sense)”고 했고, 배우 메릴 스트리프는 “과대평가됐다(over-rated)”고 썼다. 트럼프의 글에는 독특한 형식이 있다. 간단한 성명과 감정 표현 뒤 느낌표로 마무리짓는 구조다. 문장 끝에 “나쁘다(Bad!)” “위대하다(Great!)” “매우 슬프다(So Sad!)” 등을 즐겨 쓴다.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많다.

트럼프의 트윗들을 분석하는 ‘트럼프 트위터 아카이브’ 사이트를 보면 그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패배자(loser, 234건), 멍청한(dumb, 222건), 끔찍한(terrible, 204건), 어리석은(stupid, 183건) 순이었다. 영어 문법에 극도로 단순한 트럼프의 영어는 대중들, 특히 지지자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이다. 지난해 대선 때 카네기멜론대학 언어기술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문법은 11세, 단어 사용은 14세 수준이었다. ‘쉬운 영어’는 대중이 트럼프를 기존 정치인이 아닌, 자기들과 같은 사람이라 느끼게 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은 분석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과도한 트윗에 불편함을 토로하는 여론도 많다. 지난 15일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 51%는 트럼프의 트위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 프로방스에서 만나는 ‘빛의 채석장(Carières de Lumières)’

제목(title) 11 pt / 16.5 pt  
본문(body) 9 pt / 16.5 pt

Black, Bold, Regular

보 드 프로방스(Baux-de-Provence) 마을의 저지대에 위치한 대규모 채석장이 위대한 아티스트들을 위한 환상적 멀티미디어 공연장으로 변신했다. 웅장한 분위기의 내벽, 그리고 기둥과 바닥에 투사되는 대가의 작품들이 음악에 맞춰 움직이며 클립트, 피카소, 반 고흐의 상상계 속으로 우리를 이끈다. 빛의 채석장으로 향하여 공연에 관한 비밀을 파헤쳐 보자.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된 보 드 프로방스는 석회산 모퉁이에 위치한 요새 마을이며, 아를(Arles), 아비뇽(Avignon), 살롱 드 프로방스(Salon-de-Provence) 사이에 떠있는 거대한 군함의 모습을 하고 있다. 굽이진 골목길을 돌고 돌아 아름다운 중세 성 광장에 도착하면, 골짜기와 카마르그(Camargue)가 한눈에 들어오는 숨 막히는 광경이 펼쳐진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생트 빅투아르(Sainte-Victoire) 산의 봉우리까지도 볼 수 있다. 빛의 채석장이 있는 발 당페르(Val d'Enfer) 계곡도 풍덩 뛰어들고

쉽게 하는 경치를 자랑한다. 암석으로 가득 찬 혼돈, 동굴이 뚫린 절벽과 함께 요동치는 풍경... 보 드 프로방스 기슭의 발 당페르 계곡은 괴이한 모습의 채석장으로 가득하다. 그곳에 사는 요정과 마녀의 이야기에 얽힌 전설과 시는 아직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2012년부터는 컬처스페이스가 채석장 내부 10,000 제곱미터에 이르는 새하얀 암벽을 배경으로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시청각 공연을 펼치고 있다.

빛의 채석장이 있는 그랑 퐁(Grands Fonds) 채석장은 보 드 프로방스 마을과 성을 짓기 위해 필요한 흰색 석회석의 주요 공급처였다. 이 채석장은 1920년대까지 운영되다가 점차 방치되었고, 1935년이 되자 완전히 폐쇄되었다. 하지만 이 채석장의 운명에 빛을 밝혀 준 한 명의 시인이 있었다. 그곳의 캄캄한 동굴, 복도, 거대한 기둥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장 콕토(Jean Cocteau)는 영화 <오르페의 유언(Le Testament d'Orphée)>(1959)에서 그랑 퐁 채석장의 다채롭고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 ※ Open Type features for Hangul (OpenType < Style set)

### 트럼프식 영어는 ‘단순무식’? 그래서 더 먹히나

트럼프의 글에서 문맥에 맞지 않는 문장이나 철자가 틀린 것은 부지기수다.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의 유려한 글이나 연설과는 비교할 필요도 없다. 지난 4일 트럼프는 오바마가 대선 때 자신의 전화를 도청했다(tapp)고 썼다. 알파벳 p를 하나만 써야 하는데 두 번 썼다. 작년 12월, “**전례없는 행위(unpresidented act)**”라고 썼다가 **맞는 단어(unprecedented)**로 고쳤다. ‘**그들의(their)**’를 ‘**거기(there)**’로, ‘**낭비(waste)**’를 ‘**허리(waist)**’로 적기도 했다. 단수를 복수로 잘못 쓰거나 억지로 하이픈(-)을 넣곤 한다. 러시아 스캔들은 “**터무니없다(non-sense)**”고 했고, 배우 메릴 스트리프는 “**과대평가됐다(over-rated)**”고 썼다. 트럼프의 글에는 독특한 형식이 있다. 간단한 성명과 감정 표현 뒤 느낌표로 마무리짓는 구조다. 문장 끝에 “**나쁘다(Bad!)**” “**위대하다(Great!)**” “**매우 슬프다(So Sad!)**” 등을 즐겨 쓴다.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많다.

트럼프의 트윗들을 분석하는 ‘**트럼프 트위터 아카이브**’ 사이트를 보면 그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패배자(loser, 234건)**, **멍청한(dumb, 222건)**, **끔찍한(terrible, 204건)**, **어리석은(stupid, 183건)** 순이었다. 영터리 문법에 극도로 단순한 트럼프의 영어는 대중들, 특히 지지자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이다. 지난해 대선 때 카네기멜론대학 언어기술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문법은 11세, 단어 사용은 14세 수준이었다. ‘**쉬운 영어**’는 대중이 트럼프를 기존 정치인이 아닌, 자기들과 같은 사람이라 느끼게 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은 분석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과도한 트윗에 불편함을 토로하는 여론도 많다. 지난 15일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 51%는 트럼프의 트위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Default  
제목(title) 12 pt / 18 pt  
본문(body) 10 pt / 18 pt  
  
Black, Bold, Regular

### 트럼프식 영어는 ‘단순무식’? 그래서 더 먹히나

트럼프의 글에서 문맥에 맞지 않는 문장이나 철자가 틀린 것은 부지기수다.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의 유려한 글이나 연설과는 비교할 필요도 없다. 지난 4일 트럼프는 오바마가 대선 때 자신의 전화를 도청했다(tapp)고 썼다. 알파벳 p를 하나만 써야 하는데 두 번 썼다. 작년 12월, “**전례없는 행위(unpresidented act)**”라고 썼다가 **맞는 단어(unprecedented)**로 고쳤다. ‘**그들의(their)**’를 ‘**거기(there)**’로, ‘**낭비(waste)**’를 ‘**허리(waist)**’로 적기도 했다. 단수를 복수로 잘못 쓰거나 억지로 하이픈(-)을 넣곤 한다. 러시아 스캔들은 “**터무니없다(non-sense)**”고 했고, 배우 메릴 스트리프는 “**과대평가됐다(over-rated)**”고 썼다. 트럼프의 글에는 독특한 형식이 있다. 간단한 성명과 감정 표현 뒤 느낌표로 마무리짓는 구조다. 문장 끝에 “**나쁘다(Bad!)**” “**위대하다(Great!)**” “**매우 슬프다(So Sad!)**” 등을 즐겨 쓴다.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많다.

트럼프의 트윗들을 분석하는 ‘**트럼프 트위터 아카이브**’ 사이트를 보면 그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패배자(loser, 234건)**, **멍청한(dumb, 222건)**, **끔찍한(terrible, 204건)**, **어리석은(stupid, 183건)** 순이었다. 영터리 문법에 극도로 단순한 트럼프의 영어는 대중들, 특히 지지자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이다. 지난해 대선 때 카네기멜론대학 언어기술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문법은 11세, 단어 사용은 14세 수준이었다. ‘**쉬운 영어**’는 대중이 트럼프를 기존 정치인이 아닌, 자기들과 같은 사람이라 느끼게 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은 분석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과도한 트윗에 불편함을 토로하는 여론도 많다. 지난 15일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 51%는 트럼프의 트위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Parallel line  
제목(title) 12 pt / 18 pt  
본문(body) 10 pt / 18 pt  
  
Type < OpenType <  
Style set < Parallel line  
  
Black, Bold, Regular

## 배경

한글로 쓰인 문장이라도 문장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다른 언어와 함께 표시해야 할 때가 있다. 많은 한국어 어휘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어, 동음이의어를 뚜렷이 구분하기 위해 한자를 병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문적 글쓰기나 기술적 글쓰기의 경우 그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문의 병기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현재의 한글 맞춤법은 아라비아 숫자나 문장 부호 등 다른 언어 체계에서 오래전에 빌려온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복수의 언어로 쓰인 글을 조판할 때는 복수의 언어 체계를 다루는 각각의 글자체가 한 문단에서 어떻게 어우러지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어울림은 역사적일 수도 있고 시각적일 수도 있다. 다만 고유한 역사와 체계를 가지고 발전해온 서로 다른 글자체를 단일한 서사로 엮어내는 데에 있어 기술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어울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일이다.

## 섞어짜기

일상생활에서 한글과 영문 그리고 한문을 섞어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글 글자체는 한글과 숫자, 영문, 그리고 많은 경우 한문도 표시할 수 있는 글리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 글자체 한 가지만으로도 비교적 정돈된 섞어쓰기를 할 수 있다. 다만 한글 글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본어 등을 섞어서 조판해야 하는 경우, 또는 영문에만 선택적으로 다른 글자체를 적용하고 싶은 경우 등에는 한 문단에 다수의 글자체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따른다.

첫 번째는 글자체의 다양한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단의 비일관성이다. 글자체의 기본적인 형태뿐 아니라 글자의 폭이나 두께, 간격, 글줄의 높이 등 다수의 글자체를 한 문단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는 많다. 하지만 이것이 서로 미려하게 조정된 글자체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다. 서로 다른 디자이너가 서로 다른 철학과 기준으로 개발한 글자체를 임의의 원칙으로 묶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런 섞어쓰기를 지원하는 효율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부재이다. 통상적인 그래픽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디자이너는 입력한 텍스트의 영역을 클릭 또는 드래그해 ‘선택’하고 시스템의 글자체 목록에서 특정 글자체를 지정해 선택 영역에 해당 글자체를 ‘적용’한다. 이런 인터페이스 모델은 한 영역에 한 가지 글자체를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글자체를 한 문장에 적용해야 할 때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다른 글자체를 사용하는 섞어쓰기를 시도할 때에는, 글리프가 풍부한 특정 언어의

## Background

Korean sentences written in Hangeul sometimes require notation in additional languages to convey the accurate meaning. Because a large part of Korean vocabulary consists of Sino-Korean words, there are times when Chinese characters are written alongside to distinguish homonyms. Moreover, it is sometimes inevitable to use English alongside Korean in order to clarify the meaning in academic or technical writing. The current Korean orthography also contains a number of elements adopted long ago from other languages, such as Arabic numerals and punctuations. An important issue when typesetting a multilingual article is the harmony of two or more typefaces displaying different language systems within a single paragraph. This harmony can be defined with regards to historical context or visual elements. In any case, in a technical point of view, the most important thing in weaving different typefaces each of which has evolved with its own unique history and system is to effectively control the harmony.

## The Current State of Multilingual Typesetting

Because Hangeul, Roman Alphabets and Chinese characters are often used together in our daily lives, most Korean fonts include glyphs of Hangeul, numerals, Roman Alphabets and often Chinese characters too. Therefore, a relatively organized multilingual typesetting is possible simply by using one Hangeul typeface. However, sometimes one needs to use multiple typefaces in a single paragraph, such as when typesetting characters not included in Hangeul fonts such as Japanese characters or when applying a separate font to Roman alphabets only. Such situations raise two practical issues.”

The first issue is the inconsistency of a paragraph caused by the varying attributes of typefaces. While there are a lot of variables to consider when applying multiple typefaces in a single paragraph, such as the basic form of the typeface, the width, weight, spacing, and heigh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typefaces within which these aspects elegantly relate. These typefaces are grouped arbitrarily, regardless of their varying philosophy and standards.

The second issue is the absence of an effective user interface (UI) that supports this kind of multilingual typesetting. In a typical graphic user interface, designers ‘select’ the area of entered text by clicking or dragging then ‘apply’ a typeface onto the selected area by designating a specific font from the font list of the system. This interface model is designated to apply one typeface for each area, hence is inconvenient when

## 배경

한글로 쓰인 문장이라도 문장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다른 언어와 함께 표시해야 할 때가 있다. 많은 한국어 어휘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어, 동음이의어를 뚜렷이 구분하기 위해 한자를 병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문적 글쓰기나 기술적 글쓰기의 경우 그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문의 병기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현재의 한글 맞춤법은 아라비아 숫자나 문장 부호 등 다른 언어 체계에서 오래전에 빌려온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복수의 언어로 쓰인 글을 조판할 때는 복수의 언어 체계를 다루는 각각의 글자체가 한 문단에서 어떻게 어우러지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어울림은 역사적일 수도 있고 시각적일 수도 있다. 다만 고유한 역사와 체계를 가지고 발전해온 서로 다른 글자체를 단일한 서사로 엮어내는 데에 있어 기술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어울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일이다.

## 섞어짜기

일상생활에서 한글과 영문 그리고 한문을 섞어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글 글자체는 한글과 숫자, 영문, 그리고 많은 경우 한문도 표시할 수 있는 글리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 글자체 한 가지만으로도 비교적 정돈된 섞어쓰기를 할 수 있다. 다만 한글 글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본어 등을 섞어서 조판해야 하는 경우, 또는 영문에만 선택적으로 다른 글자체를 적용하고 싶은 경우 등에는 한 문단에 다수의 글자체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따른다.

첫 번째는 글자체의 다양한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단의 비일관성이다. 글자체의 기본적인 형태뿐 아니라 글자의 폭이나 두께, 간격, 글줄의 높이 등 다수의 글자체를 한 문단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는 많다. 하지만 이것이 서로 미려하게 조정된 글자체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다. 서로 다른 디자이너가 서로 다른 철학과 기준으로 개발한 글자체를 임의의 원칙으로 묶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런 섞어쓰기를 지원하는 효율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부재이다. 통상적인 그래픽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디자이너는 입력한 텍스트의 영역을 클릭 또는 드래그해 ‘선택’하고 시스템의 글자체 목록에서 특정 글자체를 지정해 선택 영역에 해당 글자체를 ‘적용’한다. 이런 인터페이스 모델은 한 영역에 한 가지 글자체를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글자체를 한 문장에 적용해야 할 때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다른 글자체를 사용하는 섞어쓰기를 시도할 때에는, 글리프가 풍부한 특정 언어의

## Background

Korean sentences written in Hangeul sometimes require notation in additional languages to convey the accurate meaning. Because a large part of Korean vocabulary consists of Sino-Korean words, there are times when Chinese characters are written alongside to distinguish homonyms. Moreover, it is sometimes inevitable to use English alongside Korean in order to clarify the meaning in academic or technical writing. The current Korean orthography also contains a number of elements adopted long ago from other languages, such as Arabic numerals and punctuations. An important issue when typesetting a multilingual article is the harmony of two or more typefaces displaying different language systems within a single paragraph. This harmony can be defined with regards to historical context or visual elements. In any case, in a technical point of view, the most important thing in weaving different typefaces each of which has evolved with its own unique history and system is to effectively control the harmony.

## The Current State of Multilingual Typesetting

Because Hangeul, Roman Alphabets and Chinese characters are often used together in our daily lives, most Korean fonts include glyphs of Hangeul, numerals, Roman Alphabets and often Chinese characters too. Therefore, a relatively organized multilingual typesetting is possible simply by using one Hangeul typeface. However, sometimes one needs to use multiple typefaces in a single paragraph, such as when typesetting characters not included in Hangeul fonts such as Japanese characters or when applying a separate font to Roman alphabets only. Such situations raise two practical issues.”

The first issue is the inconsistency of a paragraph caused by the varying attributes of typefaces. While there are a lot of variables to consider when applying multiple typefaces in a single paragraph, such as the basic form of the typeface, the width, weight, spacing, and heigh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typefaces within which these aspects elegantly relate. These typefaces are grouped arbitrarily, regardless of their varying philosophy and standards.

The second issue is the absence of an effective user interface (UI) that supports this kind of multilingual typesetting. In a typical graphic user interface, designers ‘select’ the area of entered text by clicking or dragging then ‘apply’ a typeface onto the selected area by designating a specific font from the font list of the system. This interface model is designated to apply one typeface for each area, hence is inconvenient when

## 배경

한글로 쓰인 문장이라도 문장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다른 언어와 함께 표시해야 할 때가 있다. 많은 한국어 어휘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어, 동음이의어를 뚜렷이 구분하기 위해 한자를 병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문적 글쓰기나 기술적 글쓰기의 경우 그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문의 병기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현재의 한글 맞춤법은 아라비아 숫자나 문장 부호 등 다른 언어 체계에서 오래전에 빌려온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복수의 언어로 쓰인 글을 조판할 때는 복수의 언어 체계를 다루는 각각의 글자체가 한 문단에서 어떻게 어우러지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어울림은 역사적일 수도 있고 시각적일 수도 있다. 다만 고유한 역사와 체계를 가지고 발전해온 서로 다른 글자체를 단일한 서사로 엮어내는 데에 있어 기술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어울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일이다.

## 섞어짜기

일상생활에서 한글과 영문 그리고 한문을 섞어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글 글자체는 한글과 숫자, 영문, 그리고 많은 경우 한문도 표시할 수 있는 글리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 글자체 한 가지만으로도 비교적 정돈된 섞어쓰기를 할 수 있다. 다만 한글 글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본어 등을 섞어서 조판해야 하는 경우, 또는 영문에만 선택적으로 다른 글자체를 적용하고 싶은 경우 등에는 한 문단에 다수의 글자체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따른다.

첫 번째는 글자체의 다양한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단의 비일관성이다. 글자체의 기본적인 형태뿐 아니라 글자의 폭이나 두께, 간격, 글줄의 높이 등 다수의 글자체를 한 문단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는 많다. 하지만 이것이 서로 미려하게 조정된 글자체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다. 서로 다른 디자이너가 서로 다른 철학과 기준으로 개발한 글자체를 임의의 원칙으로 묶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런 섞어쓰기를 지원하는 효율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부재이다. 통상적인 그래픽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디자이너는 입력한 텍스트의 영역을 클릭 또는 드래그해 ‘선택’하고 시스템의 글자체 목록에서 특정 글자체를 지정해 선택 영역에 해당 글자체를 ‘적용’한다. 이런 인터페이스 모델은 한 영역에 한 가지 글자체를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글자체를 한 문장에 적용해야 할 때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다른 글자체를 사용하는 섞어쓰기를

## Background

Korean sentences written in Hangeul sometimes require notation in additional languages to convey the accurate meaning. Because a large part of Korean vocabulary consists of Sino-Korean words, there are times when Chinese characters are written alongside to distinguish homonyms. Moreover, it is sometimes inevitable to use English alongside Korean in order to clarify the meaning in academic or technical writing. The current Korean orthography also contains a number of elements adopted long ago from other languages, such as Arabic numerals and punctuations. An important issue when typesetting a multilingual article is the harmony of two or more typefaces displaying different language systems within a single paragraph. This harmony can be defined with regards to historical context or visual elements. In any case, in a technical point of view, the most important thing in weaving different typefaces each of which has evolved with its own unique history and system is to effectively control the harmony.

## The Current State of Multilingual Typesetting

Because Hangeul, Roman Alphabets and Chinese characters are often used together in our daily lives, most Korean fonts include glyphs of Hangeul, numerals, Roman Alphabets and often Chinese characters too. Therefore, a relatively organized multilingual typesetting is possible simply by using one Hangeul typeface. However, sometimes one needs to use multiple typefaces in a single paragraph, such as when typesetting characters not included in Hangeul fonts such as Japanese characters or when applying a separate font to Roman alphabets only. Such situations raise two practical issues.”

The first issue is the inconsistency of a paragraph caused by the varying attributes of typefaces. While there are a lot of variables to consider when applying multiple typefaces in a single paragraph, such as the basic form of the typeface, the width, weight, spacing, and heigh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typefaces within which these aspects elegantly relate. These typefaces are grouped arbitrarily, regardless of their varying philosophy and standards.

The second issue is the absence of an effective user interface (UI) that supports this kind of multilingual typesetting. In a typical graphic user interface, designers ‘select’ the area of entered text by clicking or dragging then ‘apply’ a typeface onto the selected area by designating a specific font from the font list of the system. This interface model is designated to apply one typeface for each area, hence is inconvenient when

## 배경

한글로 쓰인 문장이라도 문장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다른 언어와 함께 표시해야 할 때가 있다. 많은 한국어 어휘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어, 동음이의어를 뚜렷이 구분하기 위해 한자를 병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문적 글쓰기나 기술적 글쓰기의 경우 그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문의 병기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현재의 한글 맞춤법은 아라비아 숫자나 문장 부호 등 다른 언어 체계에서 오래전에 빌려온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복수의 언어로 쓰인 글을 조판할 때는 복수의 언어 체계를 다루는 각각의 글자체가 한 문단에서 어떻게 어우러지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어울림은 역사적일 수도 있고 시각적일 수도 있다. 다만 고유한 역사와 체계를 가지고 발전해온 서로 다른 글자체를 단일한 서사로 엮어내는 데에 있어 기술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어울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일이다.

## 섞어짜기

일상생활에서 한글과 영문 그리고 한문을 섞어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글 글자체는 한글과 숫자, 영문, 그리고 많은 경우 한문도 표시할 수 있는 글리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 글자체 한 가지만으로도 비교적 정돈된 섞어쓰기를 할 수 있다. 다만 한글 글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본어 등을 섞어서 조판해야 하는 경우, 또는 영문에만 선택적으로 다른 글자체를 적용하고 싶은 경우 등에는 한 문단에 다수의 글자체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따른다.

첫 번째는 글자체의 다양한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단의 비일관성이다. 글자체의 기본적인 형태뿐 아니라 글자의 폭이나 두께, 간격, 글줄의 높이 등 다수의 글자체를 한 문단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는 많다. 하지만 이것이 서로 미려하게 조정된 글자체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다. 서로 다른 디자이너가 서로 다른 철학과 기준으로 개발한 글자체를 임의의 원칙으로 묶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런 섞어쓰기를 지원하는 효율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부재이다. 통상적인 그래픽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디자이너는 입력한 텍스트의 영역을 클릭 또는 드래그해 '선택'하고 시스템의 글자체 목록에서 특정 글자체를 지정해 선택 영역에 해당 글자체를 '적용'한다. 이런 인터페이스 모델은 한 영역에 한 가지 글자체를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글자체를 한 문장에 적용해야 할 때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다른 글자체를 사용하는

## Background

Korean sentences written in Hangeul sometimes require notation in additional languages to convey the accurate meaning. Because a large part of Korean vocabulary consists of Sino-Korean words, there are times when Chinese characters are written alongside to distinguish homonyms. Moreover, it is sometimes inevitable to use English alongside Korean in order to clarify the meaning in academic or technical writing. The current Korean orthography also contains a number of elements adopted long ago from other languages, such as Arabic numerals and punctuations. An important issue when typesetting a multilingual article is the harmony of two or more typefaces displaying different language systems within a single paragraph. This harmony can be defined with regards to historical context or visual elements. In any case, in a technical point of view, the most important thing in weaving different typefaces each of which has evolved with its own unique history and system is to effectively control the harmony.

## The Current State of Multilingual Typesetting

Because Hangeul, Roman Alphabets and Chinese characters are often used together in our daily lives, most Korean fonts include glyphs of Hangeul, numerals, Roman Alphabets and often Chinese characters too. Therefore, a relatively organized multilingual typesetting is possible simply by using one Hangeul typeface. However, sometimes one needs to use multiple typefaces in a single paragraph, such as when typesetting characters not included in Hangeul fonts such as Japanese characters or when applying a separate font to Roman alphabets only. Such situations raise two practical issues."

The first issue is the inconsistency of a paragraph caused by the varying attributes of typefaces. While there are a lot of variables to consider when applying multiple typefaces in a single paragraph, such as the basic form of the typeface, the width, weight, spacing, and heigh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typefaces within which these aspects elegantly relate. These typefaces are grouped arbitrarily, regardless of their varying philosophy and standards.

The second issue is the absence of an effective user interface (UI) that supports this kind of multilingual typesetting. In a typical graphic user interface, designers 'select' the area of entered text by clicking or dragging then 'apply' a typeface onto the selected area by designating a specific font from the font list of the system. This interface model is designated to apply one typeface for each area, hence is inconvenient when

## 배경

한글로 쓰인 문장이라도 문장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다른 언어와 함께 표시해야 할 때가 있다. 많은 한국어 어휘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어, 동음이의어를 뚜렷이 구분하기 위해 한자를 병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문적 글쓰기나 기술적 글쓰기의 경우 그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문의 병기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현재의 한글 맞춤법은 아라비아 숫자나 문장 부호 등 다른 언어 체계에서 오래전에 빌려온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복수의 언어로 쓰인 글을 조판할 때는 복수의 언어 체계를 다루는 각각의 글자체가 한 문단에서 어떻게 어우러지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어울림은 역사적일 수도 있고 시각적일 수도 있다. 다만 고유한 역사와 체계를 가지고 발전해온 서로 다른 글자체를 단일한 서사로 엮어내는 데에 있어 기술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어울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일이다.

## 섞어짜기

일상생활에서 한글과 영문 그리고 한문을 섞어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글 글자체는 한글과 숫자, 영문, 그리고 많은 경우 한문도 표시할 수 있는 글리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 글자체 한 가지만으로도 비교적 정돈된 섞어쓰기를 할 수 있다. 다만 한글 글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본어 등을 섞어서 조판해야 하는 경우, 또는 영문에만 선택적으로 다른 글자체를 적용하고 싶은 경우 등에는 한 문단에 다수의 글자체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따른다.

첫 번째는 글자체의 다양한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단의 비일관성이다. 글자체의 기본적인 형태뿐 아니라 글자의 폭이나 두께, 간격, 글줄의 높이 등 다수의 글자체를 한 문단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는 많다. 하지만 이것을 서로 미려하게 조정된 글자체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다. 서로 다른 디자이너가 서로 다른 철학과 기준으로 개발한 글자체를 임의의 원칙으로 묶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런 섞어쓰기를 지원하는 효율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부재이다. 통상적인 그래픽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디자이너는 입력한 텍스트의 영역을 클릭 또는 드래그해 ‘선택’하고 시스템의 글자체 목록에서 특정 글자체를 지정해 선택 영역에 해당 글자체를 ‘적용’한다. 이런 인터페이스 모델은 한 영역에 한 가지 글자체를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글자체를 한 문장에 적용해야 할 때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다른 글자체를 사용하는 섞어쓰기를

## Background

Korean sentences written in Hangeul sometimes require notation in additional languages to convey the accurate meaning. Because a large part of Korean vocabulary consists of Sino-Korean words, there are times when Chinese characters are written alongside to distinguish homonyms. Moreover, it is sometimes inevitable to use English alongside Korean in order to clarify the meaning in academic or technical writing. The current Korean orthography also contains a number of elements adopted long ago from other languages, such as Arabic numerals and punctuations. An important issue when typesetting a multilingual article is the harmony of two or more typefaces displaying different language systems within a single paragraph. This harmony can be defined with regards to historical context or visual elements. In any case, in a technical point of view, the most important thing in weaving different typefaces each of which has evolved with its own unique history and system is to effectively control the harmony.

## The Current State of Multilingual Typesetting

Because Hangeul, Roman Alphabets and Chinese characters are often used together in our daily lives, most Korean fonts include glyphs of Hangeul, numerals, Roman Alphabets and often Chinese characters too. Therefore, a relatively organized multilingual typesetting is possible simply by using one Hangeul typeface. However, sometimes one needs to use multiple typefaces in a single paragraph, such as when typesetting characters not included in Hangeul fonts such as Japanese characters or when applying a separate font to Roman alphabets only. Such situations raise two practical issues.”

The first issue is the inconsistency of a paragraph caused by the varying attributes of typefaces. While there are a lot of variables to consider when applying multiple typefaces in a single paragraph, such as the basic form of the typeface, the width, weight, spacing, and heigh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typefaces within which these aspects elegantly relate. These typefaces are grouped arbitrarily, regardless of their varying philosophy and standards.

The second issue is the absence of an effective user interface (UI) that supports this kind of multilingual typesetting. In a typical graphic user interface, designers ‘select’ the area of entered text by clicking or dragging then ‘apply’ a typeface onto the selected area by designating a specific font from the font list of the system. This interface model

## 배경

한글로 쓰인 문장이라도 문장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다른 언어와 함께 표시해야 할 때가 있다. 많은 한국어 어휘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어, 동음이의어를 뚜렷이 구분하기 위해 한자를 병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문적 글쓰기나 기술적 글쓰기의 경우 그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문의 병기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현재의 한글 맞춤법은 아라비아 숫자나 문장 부호 등 다른 언어 체계에서 오래전에 빌려온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복수의 언어로 쓰인 글을 조판할 때는 복수의 언어 체계를 다루는 각각의 글자체가 한 문단에서 어떻게 어우러지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어울림은 역사적일 수도 있고 시각적일 수도 있다. 다만 고유한 역사와 체계를 가지고 발전해온 서로 다른 글자체를 단일한 서사로 엮어내는 데에 있어 기술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어울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일이다.

## 섞어짜기

일상생활에서 한글과 영문 그리고 한문을 섞어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글 글자체는 한글과 숫자, 영문, 그리고 많은 경우 한문도 표시할 수 있는 글리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 글자체 한 가지만으로도 비교적 정돈된 섞어쓰기를 할 수 있다. 다만 한글 글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본어 등을 섞어서 조판해야 하는 경우, 또는 영문에만 선택적으로 다른 글자체를 적용하고 싶은 경우 등에는 한 문단에 다수의 글자체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따른다.

첫 번째는 글자체의 다양한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단의 비일관성이다. 글자체의 기본적인 형태뿐 아니라 글자의 폭이나 두께, 간격, 글줄의 높이 등 다수의 글자체를 한 문단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는 많다. 하지만 이것이 서로 미려하게 조정된 글자체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다. 서로 다른 디자이너가 서로 다른 철학과 기준으로 개발한 글자체를 임의의 원칙으로 묶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런 섞어쓰기를 지원하는 효율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부재이다. 통상적인 그래픽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디자이너는 입력한 텍스트의 영역을 클릭 또는 드래그해 '선택'하고 시스템의 글자체 목록에서 특정 글자체를 지정해 선택 영역에 해당 글자체를 '적용'한다. 이런 인터페이스 모델은 한 영역에 한 가지 글자체를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글자체를 한 문장에 적용해야 할 때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다른 글자체를

## Background

Korean sentences written in Hangeul sometimes require notation in additional languages to convey the accurate meaning. Because a large part of Korean vocabulary consists of Sino-Korean words, there are times when Chinese characters are written alongside to distinguish homonyms. Moreover, it is sometimes inevitable to use English alongside Korean in order to clarify the meaning in academic or technical writing. The current Korean orthography also contains a number of elements adopted long ago from other languages, such as Arabic numerals and punctuations. An important issue when typesetting a multilingual article is the harmony of two or more typefaces displaying different language systems within a single paragraph. This harmony can be defined with regards to historical context or visual elements. In any case, in a technical point of view, the most important thing in weaving different typefaces each of which has evolved with its own unique history and system is to effectively control the harmony.

## The Current State of Multilingual Typesetting

Because Hangeul, Roman Alphabets and Chinese characters are often used together in our daily lives, most Korean fonts include glyphs of Hangeul, numerals, Roman Alphabets and often Chinese characters too. Therefore, a relatively organized multilingual typesetting is possible simply by using one Hangeul typeface. However, sometimes one needs to use multiple typefaces in a single paragraph, such as when typesetting characters not included in Hangeul fonts such as Japanese characters or when applying a separate font to Roman alphabets only. Such situations raise two practical issues."

The first issue is the inconsistency of a paragraph caused by the varying attributes of typefaces. While there are a lot of variables to consider when applying multiple typefaces in a single paragraph, such as the basic form of the typeface, the width, weight, spacing, and heigh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typefaces within which these aspects elegantly relate. These typefaces are grouped arbitrarily, regardless of their varying philosophy and standards.

The second issue is the absence of an effective user interface (UI) that supports this kind of multilingual typesetting. In a typical graphic user

## 배경

한글로 쓰인 문장이라도 문장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다른 언어와 함께 표시해야 할 때가 있다. 많은 한국어 어휘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어, 동음이의어를 뚜렷이 구분하기 위해 한자를 병기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문적 글쓰기나 기술적 글쓰기의 경우 그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문의 병기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현재의 한글 맞춤법은 아라비아 숫자나 문장 부호 등 다른 언어 체계에서 오래전에 빌려온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복수의 언어로 쓰인 글을 조판할 때는 복수의 언어 체계를 다루는 각각의 글자체가 한 문단에서 어떻게 어우러지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어울림은 역사적일 수도 있고 시각적일 수도 있다. 다만 고유한 역사와 체계를 가지고 발전해온 서로 다른 글자체를 단일한 서사로 엮어내는 데에 있어 기술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어울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일이다.

## 섞어짜기

일상생활에서 한글과 영문 그리고 한문을 섞어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글 글자체는 한글과 숫자, 영문, 그리고 많은 경우 한문도 표시할 수 있는 글리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 글자체 한 가지만으로도 비교적 정돈된 섞어쓰기를 할 수 있다. 다만 한글 글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본어 등을 섞어서 조판해야 하는 경우, 또는 영문에만 선택적으로 다른 글자체를 적용하고 싶은 경우 등에는 한 문단에 다수의 글자체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따른다.

첫 번째는 글자체의 다양한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단의 비일관성이다. 글자체의 기본적인 형태뿐 아니라 글자의 폭이나 두께, 간격, 글줄의 높이 등 다수의 글자체를 한 문단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는 많다. 하지만 이것이 서로 미려하게 조정된 글자체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다. 서로 다른 디자이너가 서로 다른 철학과 기준으로 개발한 글자체를 임의의 원칙으로 묶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런 섞어쓰기를 지원하는 효율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부재이다. 통상적인 그래픽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디자이너는 입력한 텍스트의 영역을 클릭 또는 드래그해 ‘선택’하고 시스템의 글자체 목록에서 특정 글자체를 지정해 선택 영역에 해당 글자체를 ‘적용’한다. 이런 인터페이스 모델은 한 영역에 한 가지 글자체를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글자체를 한 문장에 적용해야 할 때는 무리가 따른다.

## Background

Korean sentences written in Hangeul sometimes require notation in additional languages to convey the accurate meaning. Because a large part of Korean vocabulary consists of Sino-Korean words, there are times when Chinese characters are written alongside to distinguish homonyms. Moreover, it is sometimes inevitable to use English alongside Korean in order to clarify the meaning in academic or technical writing. The current Korean orthography also contains a number of elements adopted long ago from other languages, such as Arabic numerals and punctuations. An important issue when typesetting a multilingual article is the harmony of two or more typefaces displaying different language systems within a single paragraph. This harmony can be defined with regards to historical context or visual elements. In any case, in a technical point of view, the most important thing in weaving different typefaces each of which has evolved with its own unique history and system is to effectively control the harmony.

## The Current State of Multilingual Typesetting

Because Hangeul, Roman Alphabets and Chinese characters are often used together in our daily lives, most Korean fonts include glyphs of Hangeul, numerals, Roman Alphabets and often Chinese characters too. Therefore, a relatively organized multilingual typesetting is possible simply by using one Hangeul typeface. However, sometimes one needs to use multiple typefaces in a single paragraph, such as when typesetting characters not included in Hangeul fonts such as Japanese characters or when applying a separate font to Roman alphabets only. Such situations raise two practical issues.”

The first issue is the inconsistency of a paragraph caused by the varying attributes of typefaces. While there are a lot of variables to consider when applying multiple typefaces in a single paragraph, such as the basic form of the typeface, the width, weight, spacing, and heigh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typefaces within which these aspects elegantly relate. These typefaces are grouped arbitrarily, regardless of their varying philosophy and standards.

The second issue is the absence of an effective user interface (UI) that supports this kind of multilingual typesetting. In a typical graphic

# 독일문학에 나타난 다문화사회: 스텐 나돌니의 『젤림, 혹은 웅변의 재능』을 중심으로

제목(title) 15 pt / 23 pt  
본문(body) 10 pt / 20 pt  
각주(footnote) 8 pt / 12.5 pt  
(\*각주에 Parallel line 적용)

Bold, Medium, Regular

최 윤 영

최근 독일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는 ‘다문화사회’이다. 2000년대의 베를린 등 독일 대도시 풍경은 실제로 다문화사회적으로 변모해있다 통계학적으로 보아도 이미 인구의 이상이 소위 과거의 1/3 이상이 ‘이민배경’ 을 지니고 있고 300여 만명의 외국인들이 더불어 살고 있으며 또한 유럽연합으로 인한 새로운 통합 상황은 민족과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을 당연시하게 만들고 있다 부분적으로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은 그 사이 ‘이주노동자’ 에서 ‘이민자’로 위상이 바뀌었다.<sup>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문화논쟁(Leitkulturdebatte)’을 위시한 독일과 유럽의 정체성 논쟁이나 마틴 발저 등의 최근 논쟁<sup>2</sup>에서 드러나듯이 전반적으로 독일인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사회변동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동등한 시민으로서 인정하기보다는 “틈새 시민”으로 인정할 뿐이다.<sup>3</sup> 2008 연초에도 “청소년 범죄(Jugendkriminalität)”나 “과도한 타문화(Überfremdung)” 등을 화두로 이민자 문제는 전반적으로 분명한 사회적 선 긋기 하에서 행해지고 있다.<sup>4</sup>

독일어권에서 이러한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한 이론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상호문화성(Interkulturalität)’논의이다. ‘다문화성(Multikulturalität)’ 내지는 ‘초문화성(Transkulturalität)’이 논의되는 시대에도 여전히 상호문화성 논의가 중요성을 지니는 것은 이것이 독일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해서 독어권에서는 ‘다문화성’이 상이한 문화들이 병존하는 사회 현상을 기술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거나 더 나아가 한 나라 안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통합적 사회 목표로 이해되는 반면 상호문화성 개념은 다양한 문화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각 문화체제의 경계를 넘어서므로써 문화적 체제를 이해하는 과정이자 실천적 행동으로 이해된다. 독문학계에서도 바이로이트 대학의 비어라허를 중심으로 주창하는 ‘상호문화독어독문학(Interkulturelle Germanistik)’이나 2006년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독문학자대회에서 발표된 다수의 상호문화성에 대한 논문들을 보더라도 이 개념은 여전히 유효성과 시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 1 이와 관련해서는 최윤영(2006), 「독일 이민문학의 현주소」, 실린 곳: 『독어교육』, 제35집, 425쪽 이하 참조
- 2 1990년대 이후 독일 지성계에서 벌어졌던 우파 반이주대주의 독일의 정체성 등의 논쟁에 대해서는 장희권(2006), 「회귀하는 보수주의 보토 슈트라우스 논쟁을 통해 본 1990년대 독일의 정신사적 지형도」, 실린 곳: 『독일어문학』, 제34집, 201-226쪽 이하 참조
- 3 M. Durzak(1991), Schnittpunkte interkultureller Erfahrung. Am Beispiel deutsch-türkischer Begegnung in Sten Nadolnys Roman Selim oder die Gabe der Rede, in: Praxis interkultureller Germanistik. Forschung-Bildung-Politik. Beiträge zum 2. internationalen Kongress der Gesellschaft für interkulturelle Germanistik, München, S. 292-304.
- 4 독일사회의 이민자사회에 대한 선긋기는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우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헤센주의 선거에서 드러나듯이 청소년 범죄의 증가에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요구는 외관상으로는 독일사회 내부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 해당자들이 대체로 터키계 세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는 이민자 문제로도 볼 수 있다.

※ Character set (Hangul): around 2780 chr

[illegible]

만다라

Mandara

산업혁명

Industrial Revolution

페미니즘

Feminism

잎파리

Leaves

편두통

Migraine

일편단심

Sincerity

산들산들

Sandeul Sandeul

알뜰살뜰

Frugally

예의범절

Etiquette

된장찌개

Soybean paste soup

정책위원회

policy committee

퀸즐랜드

Queensland

미완성

Incomplete

갈팡질팡

In a flap

마 각 낭 맑 겠 땅 혈  
판 글 야 한 의 숯 숯  
맘 섭 해 뻗 술 튼 묵  
운 찾 튜 장 친 켤 통  
똥 구 닳 류 풍 녀 과  
콜 라 었 판 뎡 분 칫  
짜 효 씩 승 룡 넓 겨  
춤 캐 권 봤 제 했 랜



(3)

Ƙ



℞



**A**

**Q**

ž

a

N

ũ

P

**B**



**6**



Ë

7

%

3

2

ç



s

₣



4

@

M



á



ß



p

④

?

\$

G

£



Ð

⑤

ğ

Ø

¥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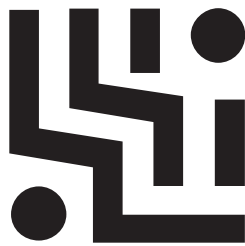
ŵ

Ž

ę

Ł

Ł



[www.lo-ol.design](http://www.lo-ol.design)